

8강 티켓 잡아라...주목! 이 경기

히딩크 “靑 축구 성공했다”



“아시아는 성공했다.”
거스 히딩크(사진) 전
한국대표팀 감독이 한국
과 일본 축구에 대해
“10년 전에는 할 수 없던
방법으로 16강에 진출했
다”고 높이 평가했다.

히딩크는 26일(한국시
간) 네덜란드 신문 텔레
그라프에 월드컵 관련 칼럼을 싣고 “한국 선수
들과 허정무 감독 모두 잘 싸웠고, (16강 진출)
자격이 있다”고 극찬했다. 그는 대표팀 주장 박
지성과의 친분도 공개하며 “박지성과 자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나는 멀리 네덜란드에 있
지만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남아공월드컵이 가
깝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2승1패의 성적으로
16강에 진출한 일본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일
본은 아름다운 축구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보여
주고 있다. 놀랍다”고 평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따칠건 따진다” 27일(한국시간) 우루과이전은 유독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이 이어져 또 다른 아쉬움을 남겼
다. 박지성(왼쪽)이 경기 도중 심판과 얘기를 나누고 있
다.
포토 엘리자베스(남아공) | 연합뉴스

“심판은 축구 강팀 편”

호주 간판공격수 해리 큐얼 오심 비판

호주의 간판 공격수 해리 큐얼(갈라타사라이)
이 남아공월드컵에서 잇따르고 있는 오심을 놓
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팀에게만 우호적”이라는 비판이다. 큐얼
은 27일(이하 한국시간) 호주 신문 뉴스리미티
드에 “이번 월드컵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
가 많은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강팀들은
단지 그들이 강팀이라는 이유로, 또 축구를 잘
한다는 이유로 반칙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F
IFA와 심판진이 월드컵 무대에서는 강팀의 비
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이다.

큐얼은 20일 조별리그 D조 가나전에서 자신
에게 고의적 핸드볼 반칙을 지적한 뒤 레드카드
를 꺼내든 로베르토 로세티(이탈리아) 주심의
판정에 대해 “분명히 고의가 아니었다”며 억울
해했다. 이어 24일 세르비아전에서 일부러 넘어
진 척을 한 세르비아 밀로시 크라시치(CSKA 모
스크바)를 예로 들며 “시뮬레이션 액션은 옐로
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옐로카드
는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심 논란은 국내에서도 들끓고 있다. 국내
팬들은 우루과이와의 16강전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판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볼프강 슈
타르크(독일) 주심이 경기 도중 서너 차례 납득
할 수 없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 후반 10분 우루
과이 디에고 페레스가 페널티 지역에서 기성용
의 발을 고의로 밟아 넘어트렸는데도 페널티킥
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동국도 상대의 강
력한 파울로 공격을 차단했지만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또 양 팀 모두 12개씩 반칙을 했지만
경고는 한국 선수들에게만 3차례 주어졌다.

슈타르크 주심은 조별리그 B조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전 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아르헨
티나 가브리엘 에이네가 결승골을 뽑을 당시 아
르헨티나 선수의 반칙을 제대로 보지 못해 이번
대회 첫 오심을 낳은 바 있다. 이처럼 판정과 관
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그동안 “오심도 경기
의 일부”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오던 FIFA
도 태도를 바꿔 개선책 마련을 언급했다. 27일
영국 인터넷판에 따르면 제롬 발게 FIFA 사무
총장은 “2014브라질월드컵부터 경기에 부심
2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이정우 기자 cyclone@donga.com

브라질 “이번에도” vs 칠레 “이번에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이끄는 ‘하얀 펠레’ 카카.
요하네스버그(남아공) | AFP연합뉴스

남미에선 1·2위 8강 티켓 놓고 또 격돌



브라질은 남미예선에서 9승7무2패로 1위, 칠
레는 10승3무5패로 2위를 기록했다.
각각 18경기에서 33골(브라질)과 32골(칠레)
을 기록할 정도로 양 팀 모두 가공할 공격력을
과시했다.

‘죽음의 조’로 불린 G조에서 2승1무, 승점
7로 1위를 차지한 ‘우승후보’ 브라질은 ‘득점 기
계’ 루이스 파비아누와 호비뉴를 양축으로 해
‘하얀 펠레’ 카카와 지우베르투 시우바, 엘라누

네덜란드 토털사커나 슬로바키아 이번이냐



유럽예선에서 8전 전승으로 본선 무대를 밟
은 네덜란드는 조별리그에서도 아르헨티나와
유일하게 3전승을 마크, 현재 이번 월드컵에서
11연승 행진을 기록하는 등 막강 전력을 뽐내고
있다.

로빈 판 페르시를 정점으로 하는 4-2-3-1포
메이션을 구사하는 네덜란드는 허벅지 부상으
로 조별리그 1·2차전에서 결장했던 아르연 로
번이 3차전부터 제 모습을 찾는 등 경기를 치를
수록 더욱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토털

등 세계 최강다운 화려한 멤버를 자랑한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빠어난 전술가’로 불리
는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칠레는 움베
르토 수아소, 마크 곤살레스, 알렉시스 산체스,
장 보세주르가 이끄는 공격진이 강점이다. 중원
에서의 활발한 패스로 찬스를 만들고, 공격형
미드필더 마티아서 페르난데스의 창조적인 플
레이가 장점. 2승1패를 기록한 조별리그에서 곤
살레스와 보세주르가 한골씩 터뜨렸고, 산체스
는 도움 1개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역대 A매치에서 칠레에 46승12무
7패, 압도적 성적을 거뒀다.

1962년 칠레대회 4강에서 4-2로 승리한 것을
바탕에 월드컵 본선에선 2전 전승을 거뒀고, 이
번 대회를 앞둔 지역 예선에서도 4-2, 3-0으로
두 번 모두 완승했다. 2002한일월드컵 지역 예
선에서 0-3으로 패한 이후 최근 8년간 A매치에
서 9승1무를 거두고 있다.

사커라는 별명답게, 공수전환이 빠르고 중원에
서의 압박이 탁월하다. 누구 한명에게 집중되지
않고, 디르크 카윙트, 클라스안 뢰텔라트 등 여
러 선수가 골로루 골을 기록한 것도 장점.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 독립 이후
본선 무대에 처음 출전한 슬로바키아는 이탈리
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는
등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대회
‘북병’으로 자리매김한 슬로바키아는 이탈리아
전 등 조별리그에서 세골을 뽑은 로베르토 비테
크의 득점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드필더 마
레크 함시크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역대 A매치 전적에서는 슬로바키
아가 6승1무2패로 앞서 있으나 이는 체코슬로
바키아 시절의 성적이라 큰 의미가 없다. 슬로
바키아 독립 이후 두 나라는 A매치 대결을 펼친
적이 한번도 없다.

김도현기자 dohoney@donga.com



‘가나의 해결사’ 기안 가나의 간판 아사모
기안이 27일(한국시간) 미국과의 16강전에서
연장 전반 3분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린 뒤
표현하고 있다. 가나는 우루과이와 4강 진출을
다룬다.
루스텐버그(남아공) | 로이터연합뉴스

뒀다! 가나...아프리카 축구의 희망으로

미국과 연장접전 끝 2-1로 꺾고 8강

가나가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지켰다.
가나는 27일(한국시간) 루스텐버그 로열 바포
캥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에서 미국을
2-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아프리카 대륙 중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했던 가나는 미국까
지 제압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
의 체면을 세웠다.

가나와 미국은 전·후반 1-1의 팽팽한 접전을
벌였고 승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졌다.
가나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케빈프린스 보아
텅이 선제골을 뽑아 주도권을 잡았지만 미국은
후반에 무서운 반격을 펼쳤다. 후반 17분 미국

클린트 뎀프시가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랜
던 도너번이 성공시켜 1-1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다.

연장 전반 3분, 가나의 간판 공격수 아사모아
기안이 날린 중거리슛이 결승골이 됐다. 기안은
조별리그를 포함해 이번 월드컵에서 가나가 기
록한 4골 가운데 총 3골을 성공시키며 득점의
핵으로 떠올랐다.

가나는 2006년 독일월드컵 때 본선에 처음 진
출했다. 독일월드컵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나
라 가운데 유일하게 16강에 오르며 주목받기 시작
했다. 두 번째 월드컵인 남아공에서는 8강까지
진출하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강국으로 부상
했다. 가나와 미국전이 열린 경기장에는 빌 클

린턴 전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해 응원했지만 결
국 가나의 패죽지세에 밀리는 자국 팀을 지켜봐
야 했다.

가나는 한국을 꺾고 8강에 진출한 우루과이
와 7월3일 오전3시30분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치른다. 두 팀의 8강전
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자존심 대결인 동시에 양
국의 간판 스트라이커의 자존심 경쟁으로도 관
심을 모은다. 가나에 기안이 있다면 우루과이에
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다. 그는 한국과의
16강전에서 기록한 2골을 포함해 이번 월드컵
에서 3골을 기록 중이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베컴 이혼설은 독일 음모?

경기 앞두고 인터넷 통해 확산



잉글랜드 전력
분석관으로 남아
공월드컵에 나선
데이비드 베컴
(35·사진)이 독일
과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일파만
파로 파진 빅토리
아 베컴(36)과의
이혼설에 발근했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27일(한국시간) 베컴이 스파이스 걸스
출신 아내 빅토리아와의 파경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베컴과 잉글랜드대표팀 일부 관
계자들은 ‘이혼설이 혹시 독일의 음모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후문이다.
베컴 부부의 이혼설은 25일부터 트위터
를 통해 새어나온 뒤 인터넷을 통해 확
산됐다.

대표팀 동료들로부터 이혼설을 전해
들은 베컴은 개인 홍보담당자를 통해 곧
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
표팀 관계자는 나아가 데일리스타에 “완
전한 사기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
지만 독일 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베컴은 부상 때문에 전력분석관으로
선수단과 함께 하고 있지만 풍부한 경험
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2018년 잉글랜드월
드컵 유치 홍보사절, 윌리엄 왕자 등 고
위인사 의전 담당 등 누구보다 바쁘게 잉
글랜드를 위해 뛰고 있다.

따라서 독일과의 일전을 앞둔, 묘한
시점에 팀의 정적적 지주 베컴의 이혼설
이 퍼지자 그 자신은 물론 잉글랜드대표
팀 관계자들은 독일에 날선 경계심을 보
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